

2017년 5월 14일, 성산읍 신산리 신산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김경화(여, 1932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제보자2: 김경순(여, 1930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• 줄거리: 부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붕 위로 던져 버리니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왜 올라갔느냐고 물으니 호박 따러 왔다고 하였다.

부자 할아버지 아들이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니 할머니가 화가 나서 부엌에서 오줌을 싸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식구들을 모두 집에서 쫓아내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.

[제보자1] 저, 누게, 야, 느네 외삼춘.

[조사자] 골아줍서.

[제보자1] 그 하르, 이름, 아이고, 잊어베엿저. 하르버지가 키가 자그만허곡. 막 부제 하르 버진다. 그 할머닌 가시릿 할머니라. 부인이 가시린다. 키가 이만이 허고, 걸걸 허게 남주 이상. 게난 ھ룬, 어떻 헹 말ㄷ. 퉁을 ھ난, 하르방 허리띠 톡 심고, 발 잡안, 지붕 우터레 확 던져부난.

[제보자2] 할망이.

[제보자1] 할망이. 할망이 신랑을 지붕 우터레 던지난. 동네 사름은 오라가난.

“아이, 하르버진 무사 그디 올라갑디가?”

“호박 타레.”

[제보자2] 고구마 타레.

[제보자1] “어. 호박 타레. 어느 호박 타코? 요거 타카, 저거 타카?”

겨난 이젠, 한창 크는 호박을 타분 거라. 그 신랑 체면 세우젠. 겐 내려온디. 그 하르버지가, 이제, 힘이 원 엇어, 키도 쪼꼬만허고. 겟 헨, 그 하르버지가 경 헌디. 그 아덜이 막 노름 허멍 일등 부제 재산을 다 먹어베연. 다 먹어부난, 할망 이 ھ룬, 밥 먹단 탁 ھ게 부엌 잇인더레 앗안, 부엌에서 가달 걸청 오줌을 잘잘

잘잘 싸난. 하르버진.

“하, 걸, 좀 저레 나가서 싸도, 거 뭐냐.”고

허난.

“응, 이디 재산 다 먹언, 당신 아덜 다 먹는디, 오줌은 골려서 뭘 헐 거냐.”고.

방이라도 강 싸불肯. 경 ㅎ멍 혔디, 그 아덜이, 재산 다 먹으난, 그 하르버지
가 완전, 그 할마니한티 쪽까질을 헌 거라.

견디, 하르버지가 막. 부제로 살아나난 돈을 어디 좀 숨겨놨단 그걸로 어떻해
네, 이제 애기덜은 다 이레저레, 딸이 성젠티. 그 하르버지는 이제, 돈 곱져 논
걸 헤네. 할망도 너네 집이 가렌, 애기덜, 뜰 성제 들안 가렌 헤동, 하르버지 혼
자만 살단 돌아간.

- 핵심어 : 하르방, 할망, 지붕, 호박, 부제, 말느틈, 오줌, 부자, 할아버지, 할머니